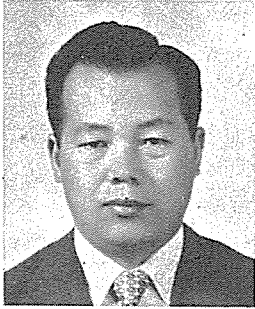


유제품 수입 자유화의 대응책



한국낙농육우협회
전무 김 남 용

1. 수입개방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83년도, 84년도는 외국의 수입개방압력이 없는 데도 정부에서는 분유의 수입자유화를 부르짖었다. 즉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는 분유의 수입을 자유화하여야 한다고 하며 경제기획원에서 강력히 주장하였다. 낙농계에서는 각종 자료를 만들어 이의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즉 독과점이고 또 가격이 국제가격의 4배를 초과하므로 수입을 자유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당시는 경제기획원의 말이 절대적이였다. 더욱 한 자리 물가를 내세웠던 때였으므로 한 자리 물가에 영향이 미친다고 하면 그 누구도 이 말을 뒤엎을 수 없었다. 그러나 결국은 분유의 수입자유화는 아시아경기 후로 미루어졌으며 아시아경기후에는 미국의 덤핑제소, 개방압력에 우리나라도 정신을 차려 우리 스스로 개방을 부르짖는 것은 삼가도록 되었다. 그러나 외국의 개방압력은 야속토록 가중되고 있다. 몇년 전만 하여도 외국의 각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유제품을 개방하라고 잡고대 같은 말을 남기고 가곤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87년도에는 치즈의 개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낙농인들의 전국 결의대회 개최 결정등으로 정부에서 치즈의 수입을 중단하기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 결의대회결정은 잠자는 호랑이를 잠에서 깨어나게 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래도 저래도 묵묵히 참아오던 농

민들을 자극시켜 거리로 뛰쳐나와 자기들의 권익을 자기들이 지킨다는 일대 전기를 마련케 하여 주었다.

금년은 감시품목의 해제로 유당 카제인의 수입이 개방될 위기에 있는 등 우리나라 낙농계에 심상치 않은 유제품의 수입자유화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유제품의 수입자유화 그것은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을 풍전등화격으로 만들게 된다.

2. 낙농행정의 재 정비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은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낙농관계 행정은 다원화되어 낙농업의 발전에 크게 저해되고 있다. 원유의 수급은 농림수산부에서, 유제품의 품목허가는 보건사회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유제품의 품목허가권이 농림수산부에 있던 것을 여러가지 합리적인 이유에서가 아니고 일방적인 명령에 의하여 보건사회부로 이관되었다. 물론 실무자들은 서로의 주장을 내 세웠으나 결론은 최고층의 명령이라는 말에서 서로의 주장을 계속치 못하고 농림수산부가 무릎을 꿇고 보건사회부로 이관되었다. 농축산물은 수급이 중요하거늘 수급을 무시한 유제품의 품목허가는 있을 수 없다. 모든 비리가 원상을 회복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유제품의 품목허가는 다시 농림수산부로 이관되어야 한다.

민간기구로서의 낙농기구도 종합적인 기구로 발전되어야 한다. 정부차원이 아닌 민간차원의 종합기구에서 낙농문제를 획일화하여 대내외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낙농문제들이 많이 일고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로 여론은 무성하면서도 그 결론은 내려지지 않고 있다. 76년도부터 일고 있는 집유일원문제는 십여년이 넘도록 집유일원화론만 되풀이되고 있지 실행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있으며 검사공영화, 원유가격 차등제 등 여론은 무성하면서도 그 실시는 막연한 실정이다. 수년 전부터 일고 있는 자조금제도 또한 많은 낙농관계인들이 주장은 하고 있으나 실시를 못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한 곳으로 집약하여 실천에 옮길 수 있고 또 수입개방에 대한 대처 등을 위하여서도 민간차원의 낙농기구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

3. 외국의 낙농정책을 배우자.

외국나라에서는 결과만을 가지고 논하기를 좋아한다. 낙농선진국들의 낙농발전과정, 또 현재의 낙농정책을 도의시 하고 국제적으로 덤핑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유제품가격, 우리나라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수입개방 등만을 가지고 경쟁력이 없다, 우리나라의 낙농은 발전성이 없다, 경쟁력 상위품목이 아니므로 개방을 하자, 국내 유제품값이 비싸니 수입을 하자는 등등 우리 낙농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보아서는 말도 안되는 일들을 논하고 있으니 가소롭기만 하다. 외국의 낙농정책, 결과로 나타난 그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 결과 뒤에는 수십년 각종 정책지원이 숨어 있으며 현재도 각종 지원정책이 그 결과를 지탱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캐나다에서 개척된 서방국 정상들이 농민을 각종 혜택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수뇌와 보호를 더 해서는 안된다는 수뇌가 맞서고 있음도 농민보호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

지고 있음인지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이다. 이와 같은 보호를 수십년 받아 온 외국의 낙농산업과 고아 아닌 고아격으로 내팽개쳐왔던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이 어떻게 경합을 할 수 있겠는가, 그네들은 유제품 수출을 위하여 전 국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유제품 수입억제를 위하여 극히 일부 부처에서만 노력을 하고 있고 대다수의 부처에서는 오히려 수입을 주장하고 있으니 이래가지고 어찌 국내 낙농업이 발전될 수 있겠는가, 외국의 낙농정책을 먼저 습득한 연후에 이에 대응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결과만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여 유제품의 수입개방을 주장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된다.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각종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만약에 지원제도를 마련치 못하면 개방압력을 막기라도 하여야 한다.

외국 어느 나라에서 유제품의 개방을 부르짖고 또 유제품의 개방을 한 나라가 있는가, 우리나라에 각종 개방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도 유제품만은 개방치 않고 부족한 양을 조정 수입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무기화하여 제조하고 있는 "카트" 서명시 미국은 단서를 첨부 유제품만은 여기서 벗어나도록 하였다고 한다. 또 일본도 12개 품목이 "카트"에 제조되어 있는데 농림대신은 어떤 대가를 받더라도 탈지분유만은 개방할 수 없다고 하였다. EC여러나라에서는 이중유가제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즉 소비자에게는 우유를 싸게 먹도록 하고 생산자인 낙농가에게는 제값의 원유대리 지급하고 그 차액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 실정에 따라 각종 제도로 낙농산업을 보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4. 낙농시정을 낙농가들도 알아야 한다.

유제품수입의 자유화는 수입으로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낙농가들이 제일선에 서서 막아야 한다.

내가 아닌 남들이 유제품수입을 저지하리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농민들은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의 권익을 보호하여 주리라는 기대로 인하여 소외당하고 또 권익도 보호받지 못하였다. 낙농산업도 마찬가지다. 이 근자에 쇠고기 수입문제가 대두되면서 양축가들이 생존권의 위협을 느껴 쇠고기 수입저지를 위하여 제일선에 나섰으므로 2년전 수입을 결정하고도 수입을 하지 못하고 농민들 설득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은가.

유제품의 수입 여부는 낙농가들의 힘에 달려 있다. 낙농가들이 낙농업의 제반사정을 잘 알아서 이에 대처하면서 수입저지를 한다면 수입은 저지될 것이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저지하여 주리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유제품의 수입은 필연적이 될 것이다. 낙농가들이 세계 여러나라의 낙농사정을 잘 알아서 주위에 여론을 조성하고 설득에 나서면 유제품의 수입은 계속 저지 될 것이나 여론조성과 설득에 실패하면 유제품의 수입을 전면 저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세계 여러나라의 낙농사정은 협회나 조합 등에서 정기간행물을 통하여 계속 주지가 되고 있고 또 각종 건의서의 첨부자료로서 많이 소개되고 있어 낙농가들이 알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쉽게 알 수 있고 또 협회와 조합에 자료를 요청하면 기꺼이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내가 많이 알아야 상대방을 설득 할 수 있다.

5. 국민들에게 공감대 형성.

담배는 86, 9, 1부로 수입자유화 되었으며 88, 7, 1부터는 수입담배값이 대폭인하 판매된다고 한다. 또 6월25일 보도에 의하면 미국서는 한국시장에 덤핑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미 2년 전에 담배시장을 개방하였지만 값이 비싼 원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수입담배 피지 않기 운동을 소비자단체에서 추가되어 캠페인을 벌여 왔으며 언론

기관에서도 많은 협조로 국민들이 수입담배를 피는 것을 죄의식까지 갖게 되어 수입담배의 판매가 부진하였었다. 국민들이 공감을 하였던 것이다. 얼마 전에는 농협임직원 부인들이 수입농축산물 안사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기사도 있었다. 유제품도 국민들이 국산을 써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어 비록 유제품이 수입이 된다고 하여도 사먹지 않는다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렇게 되자면 유업체는 물론이지만 낙농가들도 여론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여야 한다. 유업체에서도 자기 회사 제품을 PR하기 위하여 자기회사제품만이 특수한 우유인양 PR한다면 국민들은 전체 유제품을 불신하게 되는 동시 국산보다는 외국산을 선호케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우유를 불신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일고 있는 “진짜우유”론은 우유를 잘 모르는 소비자에게 국내산 우유 전체를 불신케 하는 동기를 마련하여 주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유제품이 외제에 비하여 품질이나 위생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 가격 면에서도 수입되고 있는 가격은 정상가격이 아니고 덤핑가격이고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있는 유제품의 가격이 외국의 국내가격과 비교하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수 배의 차이가 아님도 주지시켜야 한다.

국민들이 외국산 유제품을 사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유업체들이 자기사의 제품만이 질이 좋은 것으로 선전을 한다는 것은 자사 제품은 물론 전체 유제품을 불신케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6.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낙농가 수는 86년도를 정점으로 하여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낙농업의 수지가 악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이다. 우유생산비의 50% 이상을 점하고 있는 사료가 몇년

간은 인상이 안되어 원유가 인상이 없어도 낙농업을 유지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사료값도 움직일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제반 경비는 많이 앙등하였다. 그러므로 종전 방식으로 낙농을 경영한다면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며 결국은 적자의 누적으로 파산하게 된다.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낙농에서 머리를 잘 쓰고 낙농경영을 합리화하고 기술을 개발 또는 습득하여 생산비를 보다 더 낮추지 않으면 건디기 어렵다. 언제까지나 낙농가를 무조건 보호하라고 할 수 만은 없다. 벌써 많은 낙농가가 도산되고 있다. 살아 남기 위하여는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일본 북해도에서는 구라파를 따라 잡자는 스토간 하에 경쟁력을 키웠다. 그 결과 현재는 구라파를 능가하고 있다. 우리도 각자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때 국제경쟁력이 향상 될 것이다.

우유를 많이 먹고 있고 또 우유를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더 많은 우유를 먹으라고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우유를 더 싸게 그리고 많이 먹도록 하기 위하여 우유값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고 있으며 낙농가들도 유대의 일부를 우유홍보비로 공제하여 우유소비홍보 또는 우유와 유제품의 각종 연구조사사업에 충당케 하고 있다. 우리도 우유소비는 계속하여야 한다. 우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 그러므로 진한 우유, 진짜우유 등 소비자를 현혹케 하는 선전구가 나오고 있지 않은가, 또 우유와 유제품을 먹고 있지 않으면서도 우유와 유제품을 먹으면 병에 걸려 쉬 죽는 줄 아는 지식층들도 있지 않은가. 우유소비가 많이 되고 또 우유를 잘 알게 되면 유제품의 일부가 수입되어도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며 또 외국산 유제품을 선호하는 경향도 없으리라고 본다.

7. 소비홍보를 계속하자.

낙농선진국에서는 우유와 유제품이 식량화 되어

세계 주요국의 우유생산, 1986 - 87				동	독	9,044	9,358	3:5
(단위 : 1,000톤, %)				폴	랜	15,712	15,400	△ 2.0
	1986	1987	증감율	인	도	19,500	17,700	△ 9.2
미	65,354	64,500	△ 1.3	일	본	7,457	7,380	△ 1.0
캐	7,925	7,990	0.8	뉴	질	8,226	7,285	△ 11.4
소	102,173	103,200	1.0	기	타	63,126	64,703	2.5
EC	115,846	110,704	△ 4.4	계		424,163	419,220	△ 1.2
브	9,800	11,000	12.2					(USFGC 제공)